

YTN 社報

www.ytn.co.kr

• 발행인 : 구본홍 • 편집 : 홍보림 •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타워 • Tel : 02-398-8000 • 제보 : 02-398-8282 / 02-398-8585 • 휴대폰 YTN뉴스 청취 : 200-2424

2009년 4월 24일 | 제 80 호

화합과 단결로 제2의 도약을!

YTN이 제2의 도약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YTN은 9개월에 걸친 회사 초유의 노사갈등이라는 어두웠던 터널을 벗어나 노사화합과 단결을 통해 '24시간 뉴스채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YTN은 지난 1일 노사 상대방에 대한 각종 고발과 고소를 취하하고, 노조가 사장과 임직원에게 대한 적대 행위를 끝내기로 하는 등 9가지 조항에 합의하면서 방송정상화, 회사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YTN 방송 살리기'라는 대승적 가치를 위해 노사 양측이 큰 양보를 했고, 특히 대화를 통한 합의의 도출이어서 더욱 의미가 컸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갔던 노조원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감으로써 보도국을 비롯한 각 실·국에서는 활력과 의욕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의 이미지도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시청률 또한 노사분규 이전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회복했습니다. 때마침 대형 뉴스들이 잇따라 터진 도움도 있지만 구성원 모두가 분열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에 전념한 노력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YTN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는 도약과 퇴보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의 노사갈등을 완전히 치유하고 국내 유일의 뉴스 전문채널로서 자존심을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방송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손상을 입은 방송 콘텐츠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돌발영상'이 재개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는 편성개편추진팀을 가동해 방송콘텐츠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방송의 틀이 확정되면 곧바로 편성개편에 들어가 '뉴스1보는 YTN에서 얻는다'는 모토로 시청자의 눈을 끌어 모으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공정방송 의지의 정착입니다. 회사는 노사 합의 정신을 받들어 향후 공정방송 제도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정방송은 개개인 실천의 문제입니다. 구성원 모두 출입처에서부터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고 기사 한 줄이라도 선후배간에 치열한 토론을 거쳐 내보내겠다는 '쟁이 정신'만 가미된다면 YTN은 3년 연속 미디어 교수들이 선정한 '공정한 미디어' 상을 수상할 수 있으리라 자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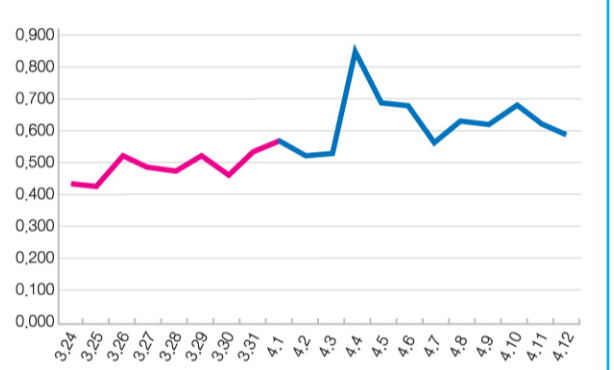
셋째, 구성원 간에 화합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오랜 노사갈등이 전통적인 언론사 선후배 관계를 무너뜨리고 서로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겼다 하더라도 이 문제 역시 서로가 한발 나선다면 그 상처에 새살이 돌아나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소통하고 화합해서 YTN을 또 다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후배간의 소통과 화합은 좋은 언론사, 신뢰받는 방송이 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분위기는 여러 면에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경영위기 돌파'입니다. 이 문제는 800여 사원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에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각오입니다. 대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로 회사는 매출액 감소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유치 인센티브제 도입 등 여러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2차 비상경영방안을 만들어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상 경영'은 모든 사원이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교육책임 만큼 사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본홍 사장은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는데 전념하고 사장부터 발 벗고 나서 매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비운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처럼 아픔을 딛고 제2의 전성기를 충분히 구가할 수 있다는 신념이 직원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YTN의 선택은 도약과 발전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화합과 단결로 제2의 도약의 이루도록 마음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결코 고여 있는 물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모든 직원들의 힘이 모아지면 조직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선후배간의 소통과 화합을 실현해 '24시간 깨어있는 방송'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시청률 뚜렷한 상승세 시청률은 방송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어 4월 들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4월4일은 북한의 로켓 발사 관련 보도로 시청률이 0.847까지 오르기도 했다.



YTN 라디오 개국 한 돌

국내 최초의 보도전문 라디오 방송인 YTN FM(94.5MHz)이 오는 30일로 개국 한 돌을 맞는다. 24시간 뉴스보도 편성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YTN 라디오는 지난 1년 간 보도전문 분야를 개척하며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YTN 라디오는 매 시각 정시와 30분의 '10분 뉴스', 종합뉴스, YTN 뉴스 동시 방송 그리고 한 시간에 네 차례 뉴스가 방송되는 뉴스 휠(News Wheel) 방식 등을 통해 보도전문 라디오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또한 <이슈 & 피플>, <YTN 생생경제>, <뉴스 집중분석> 등 뉴스 사이에 방송되는 시사프로그램들도 뉴스의 연장선에서 시의성과 심층성을 강조, 타 매체와 차별화를 꾀했다. 매 시각 27분과 57분에는 <수도권 교통과 날씨>를 전하고 하루 10차례(매회 5분) 실시간으로 <영어 뉴스>를 제공, 청취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시대를 선도했다.

특히 YTN 라디오는 방송시설의 완전 디지털화와 FM보도 정보시스템을 구축, 생방송 중 인제라도 컴퓨터 화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올라온 기사를 처리하고 국내 최초로 종이 없이 진행되는 페이퍼리스(paperless) 방송을 실현했다.

개국 1주년을 맞아 YTN 라디오는 당면과제인 가청권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대 현안인 송신소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하반기에는 음성지역이 크게 해소돼 서울 모든 지역에서 YTN 라디오 청취가 가능해진다. YTN 라디오는 개국 1주년과 송신소 이전을 계기로 보다 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시사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의 난청 해소 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더 많은 곳에서 YTN을 볼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YTN 주요뉴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뉴스 방송 공급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중이용시설에 YTN 뉴스 공급을 추진하게 됐다. 뉴스콘텐츠 판매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KBS와 MBC에선 오히려 돈을 주면서 지하철 3호선에 뉴스공급을 하고 있었다. 판매보다는 YTN의 이미지를 높이고 YTN 뉴스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콘텐츠를 공급해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가장 힘들게 성사시켰던 계약은?

가장 최근에 체결한 강남미디어의 강남고속터미널 프로그램 공급 계약이다. 강남미디어는 기존 계약사인 mbn을 3년째 상영하고 있었다. YTN의 매체와 콘텐츠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설득해 계약을 맺기로 했지만, 기존계약사의 무차별적이고 계속된 설득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지만 했다. 심지어 강남미디어 측에서 두 곳 모두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단순히 YTN의 우수성을 설명하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강남미디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YTN이 후견역할을 해주겠다는 WIN-WIN 전략으로 공세를 펼쳤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적극적인 설득이 주효했던 것 같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가장 기억에 남는 건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이 기억에 남는다. 7~8년 전에 항공사와 방송 콘텐츠 공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미 지상파가 그 분야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조차 어려웠다. 2008년에 이르러 이제는 YTN의 이미지도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판단한 만큼, 우리의 우수성을 적극 어필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항공사와의 계약을 시도했다.

지상파의 경우 이륙 전날의 뉴스를 공급하는 형태인데, 우리는 YTN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이것은 기내에서 VOD 시스템을 통해 국제선 전 노선에서 방송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 타 항공사와의 논의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은?

무엇보다 YTN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만약, YTN이 나오는 많은 곳에 다른 채널이 나왔더라면 그 타격은 실로 컸을 것이다. 더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YTN 로고가 보일수록 YTN의 이미지는 크게 향상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 앞으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역을 넓혀, 말 그대로 '어느 곳에서도' YTN 로고가 박혀있는 뉴스를 보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다른 매체들은 따라올 수 없는 YTN만의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고, 후에 이것이 유료화 시장으로 바뀔 경우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것이다.

한상규 차장 사업팀



시청 앞 세계빌딩 전광판의 'YTN 주요뉴스'... 이와 함께 아시아나 기내방송, GS25 편의점, 홈플러스, 강남 고속터미널, 서울시청, 광주시청, 마포구청 등에서도 YTN 뉴스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YTN이 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동시에 도처에 있다는 뜻이다. 지난 1년간의 사업1팀의 행적을 되짚어보면, 이는 YTN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 수 없다. 24시간 깨어있는 방송을 지향해온 YTN이 보다 사람들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이나 공공시설에 YTN 방송 노출을 늘려, 더욱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숨 가쁘게 뛰어왔다. 즉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YTN 시대'인 것이다.

2008년 3월, 신한은행 전국 약 960 여개 지점의 위성방송에 YTN 뉴스를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은행의 매체서비스에는 프로그램 '돌발영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기업은행에도 스크롤 뉴스를 띄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08년 9월에는 신한은행 지점 내 LCD TV 매체 서비스에서 돌발영상을 지점 영업개시부터 종료의 순간까지 시간 당 2회 방송하는 약정도 맺었다. 이처럼 여러 은행에서 우리는 YTN 로고를 볼 수 있다.

전국 약 20,000개의 매체 서비스를 하고 있는 KT아이프레임, 대우재단 빌딩 내 엘리베이터, 지하철 1·3·4호선 승강장, GS25 편의점, 서울중앙우체국 고객센터, 남양주시와 양주시 버스정류장, 그리고 경부선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이나 하차장 등의 공공장소 외에도 각종 빌딩, 호텔,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LCD 모니터나

TV에 실시간 스크롤 뉴스나 주요 제작 프로그램의 녹화 방송 등을 공급해왔다. 야외에서는 서울시청 앞과 광주광역시청 홍보 LED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YTN 이시각 주요뉴스'를 볼 수 있다. 또한 작년 7월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과 국제선 기내 좌석 앞 VOD 시스템에 YTN 뉴스 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YTN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찰나의 순간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최고의 경쟁력이 정보력인 만큼, YTN은 뉴스채널로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내에서의 사업들 하나하나가 YTN이 사람들의 눈과 귀가 되는 진정한 생활 밀착형 채널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희원 홍보팀



지하철 1호선의 'YTN 주요뉴스 스크롤'... 지하철 3·4호선, 남양주시·양주시 버스정류장, 국민·신한·기업·중앙우체국, 대우·서울벤처 빌딩에서도 24시간 실시간 중계됩니다.



상암동 DMC 신사옥 설계 공모

신사옥건립추진본부는 상암동 DMC 신사옥 설계 업체를 공개모집했다. 4월 10일 마감한 이번 공모에 희림, 삼우 등 19개 건축 설계 업체들이 참가했다.

신사옥 설계 공모의 주요 일정은 6월 중순 설계 작품을 접수해 외부전문가의 심사, 직원들의 투표, PT를 통해 7월 초 최종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술국장에게 듣는다

7월이면 YTN을 HD로 볼 수 있습니다



HD시스템 구축은 5월 15일부터 45일간 진행된다. 박찬중 기술국장은 "주조정실을 몇 번 옮기지만 방송 중단은 없다"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편성, 제작, 뉴스팀 등 모든 부서의 협조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촬영부터 제작, 송출까지 모든 과정을 HD로 구축 방송 환경에 맞게 스튜디오와 조명을 대폭 개선 HD시스템과 발맞춰 중계시스템도 디지털로 구축

YTN 방송기술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주·부조 HD 시스템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고화질 영상으로 제작 및 송출하게 될 본 HD방송 시스템구축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박찬중 기술국장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

시스템 구축 일정은?

시청자에게 보다 좋은 영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고화질 디지털 방송 시대를 맞아 HD 전환 계획을 그동안 검토하고 있었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올 7월 1일 시스템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일정은 5월 15일까지 주요 장비가 입고되며 공사기간은 약 4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구축하는 시스템 규모는?

촬영부터 제작, 송출까지 전 과정 모든 시스템을 HD로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부시책과 SO환경, 상암동 신사옥이전 일정 등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주조정실과 1개 부조정실을 우선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규모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취재, 편집의 HD전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조정실은 HD와 SD방송을 병행 송출하게 되며 부조정실은 HD전용으로 구축됩니다.

시스템 구축 방법은?

24시간 방송을 제작 송출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방송과 원활한 공사 진행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1단계로 3부조에서 약 1주간 주조기능을 하게 되며 이 기간 중 현 주조정실을 분배실에 이설합니다. 2단계로 이설 완료된 분배실에서 약 30일 동안 현재의 주조정실 기능을 하고 3부조는 2부조의 역할을 합니다. 3단계로 주조와 2부조의 HD시스템 설치를 병행하여 동시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D시스템으로 구축했을 때 제작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고화질 스튜디오 카메라입니다. 우선적으로 16:9의 Wide한 화면은 최적의 시야각을 확보해주며 높은 해상도는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보여 적절한 세트와 조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스튜디오는 HD방송 환경에 맞게 세트와 조명을 대폭 개선할 것 입니다. 또한 HD 스튜디오는 앵커의 머리카라, 주름살 하나까지도 확연히 표현되므로 분장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HD시스템으로 방송했을 때 기대효과는?

고화질의 영상은 보다 현장감 있는 뉴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시청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더불어 광고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SO 송출 환경

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선호채널 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기술부문의 계획은?

주·부조 HD시스템과 발맞춰 디지털 중계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OB-VAN 중계차는 HD로 되어있으며 금년에 News-VAN 1대를 HD로 전환합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M/W장비도 일부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주파수는 2010년까지만 운용이 가능하여 지난 4월 방통위로부터 디지털 M/W 주파수를 허가취득 했습니다. 또한 취재, 편집, 제작, 송출을 보다 원활케 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서버 기반의 테이프리스 디지털 뉴스룸(Tapeless digital newsroom) 구축은 현재 작은 규모의 파일럿 시스템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상암동 신사옥으로 입주할 때는 본격적인 토탈 디지털 뉴스룸(Total digital newsroom)을 구축하여 방송과 다목적 활용에 최대의 효율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금번 HD시스템 구축은 주조정실을 옮겨가며 중단 없는 24시간 방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위해 편성, 제작 등 모든 부서의 협조와 사우 여러분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HD방송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더욱더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나서 종합미디어그룹으로 크게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 7월 1일 YTN은 깨끗하고 현장감 있는 HD뉴스로 시청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것입니다. 채널고정 YTN.

최남단 제주지국

늘 새로운 분위기... 제주지국의 순환근무제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종민 지국장, 서울에서 내려온 이승주 촬영기자, 제주토박이 고재형기자, 김기면 운전기사, 정두운 기술감독

[앵커멘트]

YTN 사보에서 전 지국을 돌아보는 순서를 마련해 지국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달에는 부산지국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달에는 최남단 제주지국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재형 기자! 네, 고재형입니다.

[질문1]

자, 고재형 기자, 지난달에는 부산지국 김종호 기자가 부산의 새로운 명소 '해운대지국'을 소개했는데요, 제주 지국도 남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국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1]

네, 제주지국은 YTN에선 유일하게 순환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2005년 영상취재부 김민 기자를 시작으로 2007년 영상편집팀 권한주 기자가 제주를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상기획팀 이승주 기자가 새롭게 제주의 식구로 합류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기자들이 순환하다 보니 다양한 에피소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역시 집 문제인데요, 제주의 경우, 보통 1월 말부터 2월 초에 이사하는 '신구간'이라는 특이한 이사 풍습이 있어서 이 기간이 아니면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회사 인사가 4월에 있어서 집을 구하는 기간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문에 순환 기자들은 객지에서 집을 구하기 전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달 가까이 여관생활을 한 김민 기자. 외기러기 신세를 슬로 달래다 보니 술이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또, 권한주

기자도 방을 여러 곳 옮겨 다니다 원룸에 잠시 머물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이승주 기자도 가족들이 보고 싶어 상당히 힘들어 했습니다. 특히, 이승주 기자는 마지막 닷새를 지국 사무실에서 보내려다 결국 근처 사우나를 전전하며 훌라비 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제주지국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관광 일 번지 제주도에 근무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기도 하고, 통근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지국 근무기간동안 정이 더 쌓인다고 합니다.

또, 순환근무자들이 지국에 근무하면서 정체가 쉬운 지국의 분위기를 많이 바꿔 놓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본사 소식도 많이 전해 주고, 장비나 편집방법의 빠른 변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만큼 제주지국뿐만 아니라 전 지국에 순환 근무가 이루어지면 YTN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사를 때마다 이사비용을 놓고 본사와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픔마저 느껴집니다. 본사는 규정을 얘기하지만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순환 기자의 몸부림을 이제는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2]

제주지국 근무자들과 지국의 일이 궁금한데요?

[답변]

네, 제주지국은 유종민 지국장과 정두운 기술감독, 이승주 촬영기자, 취재기자인 저, 그리고 운전을 담당하는

김기면씨 이렇게 단출한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취재에 필수적인 오디오맨 친구가 빠진 것은 지국 식구들 모두 아쉬워하는 점입니다. 다른 지국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사건사고를 대비하며 자칫 묻힐 수 있는 지역 소식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국은 태풍의 관문인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태풍 중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는 일 년에 한 번 스는 장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지국 식구들은 태풍 발생 시 누구보다 열심히 중요한 태풍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씩 하는 중계시간 사이사이 밀그림을 위해 중계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ENG를 잡고 달려가는 촬영기자의 모습에서는 타사에 밀리지 않겠다는 비장함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뻘뻘한 도심생활에 지친 시청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예쁜 꽃과 아름다운 관광지를 찾아다니며 휴일스케치 제작에도 발에 땀나도록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숨겨진 명소, 스쿠버 같은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활동을 많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주지국원들은 YTN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작은 지국이지만 YTN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제주지국 사람들. YTN을 누구보다 아끼는 다른 사우들처럼 묵묵히 YTN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남단 지국인 제주지국에서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고재형 제주지국

YTN FM 개국 1주년 ... 라디오 PD가 궁금하다.

사람냄새 나는 뉴스와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YTN FM이 오는 4월 30일로 개국 1주년을 맞이한다. 15층 YTN FM 취재제작팀은 벌써부터 개국 특집방송 준비로 여념이 없다. YTN FM은 매 시간 각 분야로 나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된다. 그 중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알찬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웰빙플러스가 방송된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안지영 PD로부터 라디오 제작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방송을 마친 그녀가 드디어 나타났다.

YTN 라디오가 1주년을 맞이했다. 개국 멤버로 일을 시작했고, 1년이 지났는데 기분이 어떠한가?

하얀 캔버스 위에 라디오 가족 모두가 하나씩 밑그림을 그리며 채워왔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하기에 만감이 교차하고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새싹처럼 푸릇한 한해였던 것 같아요. 반면 지금은 오히려 불안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에 대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도... 1년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YTN FM도 점차 인지도를 넓혀 가고 있는 듯 하고요. 2주년, 3주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해 소개해 달라.

2009년 4월 현재 웰빙플러스(진행 이익선, 구성 안향주 / 오후 3시~4시)와 뉴스엔뮤직(제작 진행 안지영 / 밤 12시~2시)을 맡고 있습니다. 웰빙플러스는 건강, 식품,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뉴스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청취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노력하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이고요. 뉴스엔뮤직은 새벽녘 편안한 음악을 뉴스와 함께 버무려, 매일 밤 12시부터 5시까지 방송합니다. 저는 1, 2부 12시부터 2시까지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지요.

제작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웰빙플러스에서의 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환자에게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런 환자를 바라보는 가족들에게도 매우 힘든 짐을 안겨줍니다. 아토피를 앓는 자녀를 둔 어머니가 말 못할 아픔을 전하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청취자로부터 전화도 걸려왔는데요. 자신도 그 고통을 잘 안다며 아이의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접 시도해 보고 효과를 누렸던 방법을 일일이 설명하며, 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죠. 라디오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기사 속에서도, 사람 냄새를 풍기거든요.

뉴스엔뮤직, YTN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는지 몰랐다. 시도가 신선한 것 같은데, 스스로는 어떻게 느끼는지?

뉴스엔뮤직과 함께한지 이제 5개월이 지났네요. 새벽

시간 청취자들에게 뉴스와 음악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 청취자들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곡을 소개해주는 편안한 친구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은 어느 정도 사람들의 귀에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는 혹평도 많이 받았습시다. "뭔가 이상하다, 어색하다" 등등... 처음엔 저도 뉴스와 음악이라는 그림이 뚜렷하게 그려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다른 스텝 없이 음악 선곡부터 오프닝, 멘트 녹음, 편집 등의 전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벅찬 느낌이 먼저 들었죠.

또 뉴스엔뮤직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인 음악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시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주현정 선배와 지금까지 약 8천여 곡의 음악을 수작업으로 등록해 진행했죠. 주현정 선배의 8년 경력이 빛을 발하는 때였습시다. 물론 지금도 음악등록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틈틈이 뉴스엔뮤직의 음악 작업을 도와주고 계신 편성심의팀 윤순섭 팀장님, 윤진완 차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시다. 이제 시작인데요. YTN FM만의 색깔을 가진 음악방송으로 자리 잡으리라고 믿고 열심히 꾸려나가겠습니다.

두 개의 데일리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데 힘들진 않은지? 하루 일과와 방송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대부분의 시간을 웰빙플러스 제작에 쏟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그날의 식품의료분야의 주요기사와 헤드라인을 훑어봅니다. 코너의 아이템을 선정한 뒤, 작가와 함께 원고를 점검하고요. 큐시트를 작성하죠. 물론 미리 회의를 거쳐서 아이টে를 기획하고 준비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이 뉴스엔뮤직의 선곡을 하고 원고를 작성하는데요. 보통은 하루 16곡에서 18곡을 준비하죠. 이렇게 일하다보면 어느새 2시가 됩니다. 간혹 출연진들과 생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방송 1시간 전에 녹음을 하는데요. 이 녹음은 주말 코너의 녹음과 함께 거의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되죠. 그렇게 오후 3시에 생방송이 들어가고 4시에 방송을 마치면, 스텝들과 간단히 그날 방송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요. 정리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의 방송 아이টে를 또 찾아야 하는데요. 이를 선정해 대략적인 구성을 잡고요. 섭외 대상자를 찾은 후 작가가 섭외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저는 뉴스엔뮤직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이 시간이 대부분 5시에서 6시 사이고요. 오전부터 잠잠이 준비해온 선곡을 마친 뒤 원고를 작성해 스튜디오로 올라가면 또 한번의 전쟁이죠. 스튜디오가 항상 비어있는 것이 아니기에 녹음 전쟁이 치열하니까요.

누구나 라디오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한다.

특히 라디오 PD라고 하면 낭만적인 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그러한지?

저도 그랬습시다. 청취자들의 가슴에 딱딱 꽂히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잔을 즐기는 여유...^^ 제가 영화로 만난 라디오 PD들도 대부분 그랬거든요.(봄날은 간다 이영애, 접속 한석규 등) 물론 절대 아니라고도 말할 수도 없지만요. 하지만 대체로 그런 낭만적인 라디오 PD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네요. 라디오 프로그램은 TV와는 달리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매일매일 전파를 탑니다. 비슷한 업무 스케줄이 일주일 내내 빠르게 반복되죠. 또 PD와 작가, 진행자라는 적은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매일 제작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면 방송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라디오 PD는 프로그램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은 리더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의구심을 품으면 순식간에 프로그램이 흔들린다는 것을 느낍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역시 스텝들과의 대화도 중요하단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습시다. 또 무엇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선배 PD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조언을 얻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좋은 방송을 위해 애쓰는 라디오 가족들과 울고 웃으며 지낸 1년, YTN FM이 첫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더 많이 넘어지고 배워야 하겠지요. 그러나 한 단계 또 성장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YTN FM을 듣지 않고는 생활의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날까지,

YTN FM Forever!

안지영 '웰빙플러스', '뉴스엔뮤직' PD

DMB 데이터방송의 오늘 그리고 내일

“울 아빠요? 그냥 회사원인데요?”

아빠의 일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해도 곤잘 하는 중학교 2학년 큰 아이와 달리, 초등학교 4학년 막내는 아빠를 TV에서 볼 수 없는 게 큰 불만이다. 유치원 때만 해도 “울 아빠, 방송에 나오거든”이 친구들에게 자랑거리였는데, 요즘엔 “아빠 뭐하시니?”란 질문에 “그냥 회사원인데요.”라며 내심 비분강개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니까 그렇다 치고, 아직도 “요즘 왜 안 보여? DMB에서 도대체 무슨 일 하는 거야?”라는 선후배들의 인사를 접할 땐, 한편 섭섭하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다. 마침 사보 원고를 청하는 홍보팀의 부탁에 이런 질문의 뿌리를 뽑기로 작정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DMB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DMB사업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점이다. 즉, 지상파DMB사업자인 YTNDMB는 @YTN이라는 지상파DMB TV채널을 하나만을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1.152Mbps의 대역폭으로 현재 5(~8)개의 채널을 송출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인 것이다. DMB폰 사용자들은 주로 TV 채널 대여섯 개, 라디오채널 서너개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지상파DMB는 수도권에서만도 물리적으로 무려 32개의 채널을 송출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지상파DMB방송사들의 대역폭 사용 현황]

(2009년 4월 13일 현재, T=TV, R=Radio, D=Data)

U1미디어		YTNDMB		UBS(구 1 to 1)		MBC		KBS		SBS	
8A		8B		8C		12A		12B		12C	
채널	대역폭	채널	대역폭	채널	대역폭	채널	대역폭	채널	대역폭	채널	대역폭
T U1	496	T @YTN	512	T UBS	496	T myMBC	544	T KBS STAR	496	T SBS u TV	544
T KBS HEART	496	R TBN	160	T MBCNET	496	R MBC Radio	160	R KBS Music	112	R SBS v-Radio	128
D U1-BWS	160	R Satio	128	D UBS-Data	32	R Arirang	128	R U1 Radio	128	R lbs v-Radio	128
		D broad&tv	16	D CBS-Data	128	R MBN	128	D UKBS BWS	96	R KDMB	128
		D 4Drive	128			D MBC TPEG	128	D UKBS TTI	96	D SBS Radio	128
		D NBEEN-BWS	80			D MBC BWS	64	D UKBS TPEG	64	D N/U	96
		D TEST	32								
		D EXTRA	96								

실제 지상파DMB가 첫 정규방송을 송출한 2005년 12월 1일, YTNDMB는 TV채널 @YTN외에도 데이터채널 NBEEN, 그리고 임대채널인 라디오채널 TBN과 Satio를 함께 송출했다. 초기 포털형 정보제공 서비스인 BWS에 국한됐던 데이터채널 NBEEN은 이후,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TPEG)인 포드라이브(4Drive)와 하나로통신(현SK브로드밴드)에 T커머스형 데이터 임대채널로 확장됐고, 현재 시범서비스를 포함, 5개로 구분 제공되고 있다.

[BWS와 DMB2.0의 비교]

	BWS	DMB 2.0
공통점	웹파일(HTML)형식의 정보를 독립된 데이터채널로 송출	
차이점	데이터 채널 전용 화면으로만 이용	TV화면과 데이터 동시 사용 가능
가능개시일	2005년 12월 1일	2009년 4분기
화면에		

I. 고전해 온 BWS, DMB2.0으로 거듭나다.

유사 웹서비스를 데이터 방송으로 제공하는 BWS 서비스 NBEEN은 뉴스와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정보를 평시에 제공함은 물론, 2006년 독일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 큰 이슈가 있을 때 특집 정보를 꾸며 제공하는 등, 일반 웹포털 서비스의 무선화에 노력해 왔다. 일부 정보는 방송으로, 또 일부는 통신서비스로 접속하는 명실상부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로 각광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지만, 초기 무선인터넷 매출 감소를 우려한 이동통신사들의 비협조, 그리고 그에 따라 단말기 보급이 극도로 부진했던 것이 문제였다. 이는 YTN DMB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DMB방송사들의 고민거리였고, 이 문제의 타개책으로 등장한 것이 올 연말 선보일 DMB 2.0이다. 기존 BWS와 같은 기술 규격을 사용하지만, 데이터채널을 찾아들어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TV를 보면서 방송 또는 통신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부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의 이동방송 원세그와 비슷하게 TV화면은 위로, 부가데이터는 아래쪽으로 제공될 이 서비스는 6개 DMB방송사들과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멋진 론칭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동사들이 최소 4백만대의 수신기 보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보편화된 데이터방송 서비스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내비게이션 시장의 판도, TPEG이 바뀐다.

DMB2.0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DMB 데이터 방송의 대표 서비스는 TTI, 즉 교통정보 서비스다. 기술 규격 이름인 TPEG이 아예 서비스명으로도 불리는 이 서비스는 지상파DMB 최초의 유료서비스인 덕에 YTNDMB와 지상파3사, 그리고 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까지 가세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TPEG의 경쟁은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방송의 시청률 경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청자가 단말기를 산 뒤에, 보고 싶은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이 시청률 경쟁이라면, TPEG의 경쟁은 단말기 생산 이전에 결정된다. 단말기가 출시될 때, 이미 YTN TPEG을 수신하느냐 아니면 KBS TPEG을 수신하느냐가 결정된 채로 출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단말기 생산업체는 생산라인 단순화 등 원가 절감을 위해, 한 방송사만의 TPEG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TPEG 방송사들의 경쟁은 시청자(소비자)의 마음은 물론, 그보다 앞서 단말기 생산업체, 내비게이션 맵 소프트웨어 생산업체, 유통업체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YTNDMB의 TPEG서비스 <포드라이브>

는 - 적어도 서비스 지원 단말기 종 수에 있어서는 -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덕택이다. <포드라이브>는 단말기 값에 TPEG요금까지 포함해서 받는 KBS나 MBC와 달리, 사용자가 단말기 구입 후에 요금을 내고 TPEG을 사용할 수 있는 후불제를 도입했고, 운전자가 주변의 주유소 기름 값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 KBS와 MBC의 TPEG 서비스에는 없는 - 유가정보를 실시간 송출하고 있다. MBC보다 약 24.5% 많은 지역(노드링크 수 기준)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다른 방송사보다 훨씬 앞서서 고객 서비스용 홈페이지(www.4drive.co.kr)와 고객 대응 전용 콜센터(1577-0054)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사별 TPEG 지원 단말기 출시 종수]

* 비공개로 DB 송출시만 경우, 일부 누락될 수 있음

연도	YTNDMB	MBC	KBS	SBS	TU미디어
2006	0	0	3	0	0
2007	15	15	11	4	1
2008	30	14	13	5	2
2009	13	5	2	2	1
합계	58	34	29	11	4

[교통정보 송출 링크 개수 비교]

* 2009년 4월 2일 현재, 직접 수집 수신편서

구분	YTNDMB	MBC
교통정보 송출 링크 개수 (합계)	33,783	27,152
각 사가 단독 송출하는 링크 개수	13,620	6,989
양 사 모두 송출하는 링크 개수	20,613	

이 밖에도 DMB채널들의 방송 정보를 알려주는 EPG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데이터방송 서비스가 빛을 볼 날을 기다리고 있다. 마케팅 전략 상 모두 공개할 순 없지만 말이다. 이런 노력의 과정에서 YTNDMB에게 주어진 기록들은 많다. YTNDMB는 한국 지상파 방송 사상 최초로 유료 방송 승인(TPEG, 2007.3.)을 얻어냈고, 역시 지상파 방송에선 처음으로 T커머스 흡소핑 데이터방송을 시작(임대채널, 2007.7.)했으며, YTN 10주년 역사상 최초의 특허(지역 이동시 DMB 채널 자동 전환 방법, 2009.2.) 등록에 이어, 최근 두 번째 특허(내비게이션 사용자의 신고를 이용하는 도로 정보 안내 시스템, 2009.4.)까지 등록에 성공했다. (이것 역시 공개는 이르지만,) YTN 최초의 기술 해외 수출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YTNDMB는 DMB 2.0의 프로젝트 매니저(PM), CAS, 재난방송 등 TTA에서의 다양한 DMB 기술 실무반 운영을 맡는 등 데이터방송의 서비스 모델 개발이나 기술 규격 결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BIFS라는 데이터방송 콘텐츠로 프랑스 칸에서 열린 MIPTV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2006.4)했던 것도 YTNDMB의 이런 저력이 일궈낸 성과였다.

아마도 막내 녀석이 아빠가 하는 일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언젠가는 아빠가 DMB폰 화면 뒤에서 혹은 내비게이션 화면 뒤에서 - 예전에 IT기술을 취재하며 TV에 얼굴을 내밀던 때와 똑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욱 치열하게 - 한국 방송의 발전, 세계 미디어 역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그냥 회사원’이 아니라, 미지에 도전한 멋진 개척자였다는 것을 알아줄 것이라고.

기정훈 YTN DMB 데이터서비스팀장



월미도 모노레일 부실공사 취재기

“860억 공사를 막아라!”



“볼트 조립 대신 땀질을 하고 있어요.” 두 달 전, 모노레일 공사 현장 사진을 제보 받았다. 설계를 맘대로 바꿔 볼트 조립 대신 용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대로 두면 열차를 떠받치는 기둥과 궤도 이음새가 끊어지거나 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다. 일단 확인이 필요했지만, 사진을 받아든 순간, 이미 난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게 예고된 최후 도전장이었다.

싸움의 시작은 지난 해 가을로 거슬러 간다. 인천 지국에서 일하면서 처음 모노레일 문제를 취재하던 때다. 당시에는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부실 공사와 시공사 비리를 캐내려고 흙먼지 날리는 월미도를 돌고 돌았다. 하지만 제보자 말 한마디에 밀도 끝도 없이 달려든 취재는 더 나아가지를 못했다. 팩트는 확인되지 않고, 시공사는 훨씬 완고했다. 결국 ‘공사 지연’으로 야마를 바꿔 한 꼭지 돌돌 말았는데 퇴근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해 울컥했다. 진실을 가린 장막을 끝내 걷어내지 못하고 튕겨진 내 가여운(?) 팩트들을 하나둘 수습하며,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다.

다섯 달이 지나 취재는 다시 시작됐다. 전문가나 최초 설계자들을 통해 문제점을

거듭 확인했다. 꼬박 2주가 걸렸다. 이번에는 외곽에서 팩트를 모아 논리의 탑을 견고하게 세우고 준비가 되면 그때 현장으로 가고 싶었다. 그래서인지 마침내 월미도에 도착한 나는 마치 중무장한 여전사같은 꼴이었다. 6.3km 전체 노선을 따라 기둥 위에는 궤도 철판이 이미 올려졌고, 기초 용접도 끝나있었다. 먼저 이상은 선배랑 월미도를 돌며 화면을 담았는데 시공사인 한신공영 쪽에서 언제 알고 나왔는지 뭐하냐고 계속 쫓아다녔다. 우리는 단지 아름다운 월미도의 풍경을 찍고 있다며 손사래를 치는 오버액션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겨우겨우 촬영을 해야 했다. 비는 추적추적 오고, 해도 누엣누엣 지던 오후 4시, 때 아닌 월미도 풍경을 찍는다니, 돌이켜보니 어설피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사실 첫 기사가 나갈 때까지 한신공영은 눈도 깜박이지 않았다. 기사를 내든 말든 용접이 맞다는 걸 증명할 거라며 큰소리를 쳤다. 정당한 해명이든 변명이든 나는 따지고 그들은 대답하면 된다. 한신은 전문 건축 용어를 동원해 ‘인문대 나온 어린 여자 기자’가 못 알아들겠거니 장광설을 늘어났다. 거짓말을 계속 들으려니 육했지만, 꼭 참았다. 속으로만 되뇌었다. 그냥 기록하면 된다고, 굳이 그들 앞에서

진실을 놓고 토론하지 않아도 기사로 얘기하면 된다고. 지금껏 관리자나 애꿎은 홍보팀 직원들이랑 싸우느라 취재보다는 감정싸움에 휘말리곤 했던 내가 완전 여유로 분한 것이다.

일주일 만에 시공사인 한신과 발주처인 교통공사가 백기를 흔들었다.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한 용접도 해체해서 원래 설계대로 하겠다고. 수십억이 추가로 든다고 우는 소리를 냈다. 오는 8월 인천 도시축전을 겨냥한 애초 목적도 물거품이 된 마당이었다. 가까운 면이 없진 않지만, 이게 맞다. 시간이나 비용을 핑계로 관찮겠거니 슬쩍했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백화점이 무너져 어이없게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우리 역사를 생각하면, 명백히 맞다.

나에게는, 기자에게는, 영장이 없다. 철폐해서 가둘 구치소가 없다. ‘알권리’란 카드도 가끔은 메아리처럼 공허해진다. 그런데 난 어디든 끼어들어 휘방을 놓아야 한다. 그래서 이 짓이 내게는 전쟁같이 느껴진다. 진실이 맞다면 기자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을 걸고 맞서는 치열한 전쟁. 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분명한 건 난 지고 싶지 않다.

박조은 사회부

시청자에서 리포터로 변신 ...

전 세계 시청자들을 찾아 가볼까?

“필리핀 마닐라에서 YTN 인터내셔널 박규빈입니다” 현장에 나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스탠드 업 멘트를 하는 순간, 그 기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곳 필리핀에서도 케이블 방송을 통해 YTN을 시청하면서도 내가 직접 취재현장에서 스탠업을 하리란 생각을 하진 못했었다.

현지에서 교민들을 위한 기사를 작성하고 취재를 하는 직업을 가진 나였지만 YTN같은 영향력이 큰 방송사를 위해 일한다는 건 매력적인 일이다. 물론 그 매력을 느끼기도 전에 카메라 앞에서 얼어붙은 내 자신을 발견해야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첫 경험이 주는 어색함과 낯설음은 어느새 필리핀의 소식을 고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전한다는 뿌듯함과 책임의식으로 바뀌었다. 고국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YTN 채널을 통해서 그것도 내가 리포트한 내용을 보게 되기에 더욱 그러했다.

현장에 나가 교민들의 모습을 취재하면서 그들을 인터뷰하고 또 그들을 느끼면서 사무실에 앉아 그저 글로만 기사를 작성해왔던 내 자신이 한 단계 더 전진한 듯한



기분이 든다. 물론 필리핀 현지의 특성상 장비의 열악함이나 때론 취재 여건이 좋지 않아 고민을 한 적도 있었지만 담당 PD의 빠른 피드백으로 무사히(?) 취재를 마칠 수 있었다.

내가 촬영하고 더빙한 방송분을 TV로 볼 때면 쑥스럽기도 하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후회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방송분을 인터넷을 통해 몇 번이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촬영카메라의 매뉴얼

을 뒤져보고 연습 삼아 찍어 보기도 하며 어느덧 방송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다.

다른 국가의 리포터들이 방송한 내용을 보며 ‘저런 아이템도 있구나?’ 라는 놀라움과 동시에 더 분발해야 하는 의욕이 불타기도 했다.

YTN 담당 피디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YTN ‘글로벌 코리아’ 과의 인연은 그저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시청자였던 나를 TV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당당하게 뉴스를 전하는 리포터로 만들어 주었다.

한인들이 많은 거리에서 취재를 나가 “YTN 잘 보고 있어요.” 라고 격려의 말을 건네주는 교민들을 접할 때면 더욱 힘이 나곤 한다.

물론 고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 녀석들이 방송을 보고 “네가 YTN에 나오더라. 표준어도 잘 쓰던데”라고 전화가 걸려올 때면 쑥스럽기도 하지만 말이다. (리포터의 고향은 부산이다.)

자 그럼 이제 어떤 ‘Hot’ 한 아이템으로 전 세계 YTN 시청자들을 찾아 가볼까?

박규빈 글로벌코리아 필리핀 마닐라 리포터

사이언스TV 봄 개편

재미와 정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YTN 사이언스TV가 봄 개편을 맞아 대대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는 심정으로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이언스TV는 여러 선배배님들의 애정과 관심 덕분에 지금까지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개국부터 2년 연속 공익채널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해 세계적인 과학채널 BBC Knowledge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방송하면서 저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어서 올 봄 드디어 1,300만 시청가구수를 돌파했지요. '과연 YTN 이구나' 하는 세간의 평가를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은 저희만의 자부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봄 개편은 지난 2년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알차게 준비한 만큼 시청자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꿀찌들의 통쾌한 반란>은 방영 초기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꿀.통.반>은 사이언스TV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1년 프로젝트 프로그램입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등으로 교육 기회가 박탈된 '열공'과 꿀찌들이 1년간 합숙을 통해 그들만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지요. 열정은 1등이나 성적은 전국 꼴등부터 단 한번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친 억울한 수재들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출연진이 등장해 '인생 역전' 드라마의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사이언스TV의 개국 2년차 내공은 봄 개편 프로그램 곳곳에 스며있습니다. 세계적 이슈인 '녹색성장'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사이언스 스페셜, 녹색의 꿈>을 해외 올 로케이션을 통해 선보이고, 한국형 질병을 꼼꼼히 살펴본 <이무송 정혜신의 토마토>도 3번째 시즌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기존 대담프로그램의 딱딱함과 지루함을 넘어선 <한정호의 인물탐구>와 일상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과학향기>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걸작 다큐멘터리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구촌의 숨겨진 놀라운 비경을 HD영상으로 소개하는 <사이언스 자연다큐, 숨겨진 지구>와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태 보고서 <지구환경 리포트>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미드' 열풍의 주역인 <넘버스>도 사이언스TV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수학천재인 동생과 FBI 특수요원인 형이 미궁에 빠진 범죄를 수학 이론을 통해 해결하는 <넘버스>는 드라마 보는 '재미'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이 외에도 <HD 역사 대기행>과 <찰리 제이드>, <놀라운 야생세계> 등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YTN의 차별화된 채널이자 한국의 대표 과학방송인 사이언스TV는 이번 봄 개편을 통해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저희 사이언스TV를 애정과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면 사이언스TV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김대공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녹색의 꿈

사이언스 스페셜 <녹색의 꿈>은 2009년 화두로 떠오른 저탄소, 녹색환경, 녹색을 통한 경제성장, 자원의 재활용 등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다큐멘터리다. 지난 3월 20일에 첫 번째 아이টে이름 <녹색이 바꾸는 세상> 편이 방송됐다. 저탄소·녹색성장이 이런 것이다 라는 화두를 던져주는 형식으로 구성을 했다.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저탄소·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두 번째 아이টে이름은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이다. <플라스틱, 환경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기획 제작을 했다.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플라스틱의 역사와 유해성,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플라스틱을 위한 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세 번째 아이টে이름은 물이다. 사람은, 아니 생명체는 물 없이 살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물이 사라지고 있다.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우리가 물 쓰듯 써버리는 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가뭄지역의 고통과 정부의 대책, 우리의 자세와 책임 등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꿀찌들의 통쾌한 반란

<꿀.통.반>은 어려운 경제 환경 등으로 교육 기회가 박탈된 '열공'과 꿀찌들이 1년간 합숙을 통해 그들만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야심찬 프로젝트다.

열정은 1등이나 성적은 전국 꼴등부터 단 한번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친 억울한 '수재' 들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숨은 출연진을 찾아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인생 역전' 드라마다.

<꿀.통.반>은 특히 산간 오지마을이나 외딴 섬마을 수험생 등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출연 기회를 제공, 세계 최고의 교육 열을 자랑하는 '교육 공화국' 한국 사회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학생들에게 '공부 비법'에 대한 본격적인 솔루션이 제공된다. 또한 개성 넘치는 2명의 MC를 투입, 쉬는 시간보다 더 재미있는 '수업시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2개 팀으로 나뉘어 서로 간의 상생과 발전을 담아낼 <꿀.통.반>은 '재미'는 물론 선의의 경쟁을 통한 '감동'도 선사할 것이다.

1년간 펼쳐질 국내 최초 100% 리얼 수험 생활을 그릴 <꿀.통.반>의 치열한 여정은 사이언스TV를 통해 3월 27일 낮 11시 30분(재방 밤 10시 30분)부터 매주 선보일 예정이다.

